

개념분석 전략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

이명선¹⁾ · 이소우¹⁾ · 김금자²⁾ · 김묘경²⁾ · 김지현²⁾ · 이경희²⁾ · 이인옥²⁾ · 이정숙²⁾ · 홍정희²⁾

서 론

간호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간호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할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론 개발은 곧 간호실무 및 간호학문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한편 간호이론의 핵심 요소는 개념으로서,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통하여 간호현상에 적합한 이론이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연구는 이론 개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Walker & Avant, 1988).

일반적으로 개념은 현상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나 표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간호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심리적, 사회적 또는 행동적 개념들은 사물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인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관념이나 구성이다(Lee, Kim, Lee, Lee, & Jung, 1997). 따라서 개념은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밖에 없다. 개념의 이와 같은 추상성 때문에, 개념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관찰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가 도출되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개념의 이러한 추상성은 또한 개념에 대한 혼동과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결국 한 학문의 과학화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연구자가 개념이 지닌 다양한 함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에 이용하게 되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국 실무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야기된다(Morse, 2000).

이렇듯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즉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가치를 명료화해야만 그 개념은 현상과 관련된 것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갖게 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학자들이 개념에 대한 개발 방법들을 제시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Walker와 Avant(1995)이다. 이들은 개념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념분석, 개념합성, 그리고 개념도출로 구분하고 있다. 개념분석은 기존의 개념들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단계에서 필요하며, 개념합성과 도출은 현상을 나타내는 적절한 개념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개념 개발은 개념분석으로 통칭되곤 한다.

개념분석은 적절한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단순한 요인으로 정리하여 이론 내의 모호한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정확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명료화 작업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작업은 개념의 특성 및 분석 목표에 따라 적절한 분석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조작적 정의를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이론의 추가를 위해서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의 사용과 맥락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방법(Rodgers, 1989)을, 그리고 개념의 성숙 수준을 분석하여 개념을 정련화시키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문헌평가 방법(Morse, 2000)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Walker와 Avant(1995)의 방법과 혼종 모형(Schwartz & Kim, 1986; 2000)만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주요어 : 개념 형성; 문헌고찰 연구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과정생
투고일: 2006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9일

연구 결과만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념분석 방법 중 보편화 되어있는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규명함과 동시에, 각 방법을 적용한 예를 제시하여 향후 개념분석 연구에 적절한 접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념에 대한 철학적 견해

개념분석 방법 고찰에 대한 본론에 앞서 우선 개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개념 그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개념 분석 작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려면,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Meleis, 1985). 이와 같이 개념에 대한 철학적, 인식론적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연구자로 하여금 개념에 대하여 보다 확장되고 열린 사고로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선택하여 개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익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odgers(2000)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실체론적(entity)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성향적(dispositional) 관점이다. 실체론적 관점에서의 개념은 “실체” 혹은 구체적인 사물에 초점을 맞춘다. 즉, 현실의 실제적인 요소와 일치하거나 직접적으로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반면에 성향적 관점에서는 개념을 어떤 행동을 위한 습관 혹은 능력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능력에는 개념과 관련된 특별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행동의 수행은 물론 언어의 효과적 사용 능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무균”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 보자. 실체론적 관점에서 “무균”이라는 개념은 균이 없는 것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성향적 관점에서는 무균적인 행동이나 능력에서 “무균”이라는 개념을 보고자 한다. 즉 개인은 “무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무균”적인 기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체론적 관점의 개념은 사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만, 성향적 관점에서의 개념은 가능한 행동과 사용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명확히 하게 되면, 연구자는 관심 개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안목을 얻게 된다.

개념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국내외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된 방법은 Walker와 Avant의 방법이다. 그리고 Chinn과 Kramer의 방법(1995)과 혼종 모형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진화론적 방법,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비평적 문헌평가(Morse, 2000), 비판적 분석, 그리고 페미니스트 접근 등이 개념분석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2>.

Walker와 Avant의 방법

Walker와 Avant(1995)의 개념분석 방법은 간호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Wilson이 1963년 제시한 개념분석의 11개 단계를 수정하고 단순화하여 8개의 단계로 제시된 것으로 선형적 분석 방법의 특성이 있다. 구체적인 단계로는 개념의 선정, 분석의 목적 결정,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 정의의 속성 결정, 모델 사례 작성, 추가 사례 작성(경계, 관련, 상반, 창조, 변칙 사례), 선행 요인과 결과 규명, 그리고 경험적 증거에 대한 정의 등이다. 이 방법은 이론과 연구에서 사용될 조작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론적 정의 규명에 도움이 되며,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간호 용어들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구 개발과 간호진단을 위해 응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Walker & Avant,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의 제한점으로는 간호 현상에 적절한 개념을 개발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Morse, Hupcey, & Lenz, 1997). 즉 개념의 정의와 속성, 그리고 사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사례들이 간호 현상 이외의 다양한 현상에서 도출됨으로써 간호의 유일한 현상들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념분석 단계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연구자들이 분석을 선형적으로 진행시키게 한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Morse, Hupcey, & Lenz, 1997).

Chinn과 Kramer의 방법

Chinn과 Kramer(1995)는 개념을 ‘경험적 체험이 복잡하고 정신적인 공식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의하여 경험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Chinn과 Kramer도 Wilson의 방법을 수정하여 개념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분석단계는 Walker와 Avant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시각적 상징, 대중적인 전통문헌, 음악과 시, 전문적인 문헌, 그리고 사람들에 의한

<Table 1> Topics of concept analysis by method

Method by Walker & Avant		
국내		국외
회상 (전시자, 1989)		Crisis (Geissler, 1984)
건강증진 (변영순, 장희정, 1992)		Mother-daughter identification (Boyd, 1985)
사랑 (이옥자, 1993)		Intuition (Rew, 1986)
강인성 (이영애, 1994)		Hopelessness (Campbell, 1987)
직관 (신경림, 1994)		Self-nurturing (Nemeek, 1987)
여성건강 (이경혜 외, 1995)		Health (Simmons, 1989)
접촉 (조경숙, 최의순, 1995)		Reassurance (Teasdale, 1989)
피로 (양광희, 1995)		Self-neglect (Reed & Leonard, 1989)
돌봄 (이병숙, 1996)		Decision making (Matteson & Hawkins, 1990)
고통 (강경아, 1997)		Experience (Watson, 1991)
자원동원성 (서순림 외, 1997)		Hope (Stephenson, 1991)
권력부여 (구옥희, 1998)		Power (Hawks, 1991)
어머니됨 (김영희, 1998)		Serenity (Roberts & Fitzgerald, 1991)
영성 (김강미자, 이병숙, 1998)		Belonging (Hagerty, Lynch-Sauer, Patusky, Bousema, & Collier, 1992)
안녕 (장혜경, 이숙자, 1999)		Chronic sorrow (Lindgren, Burke, Hainsworth, & Eakes, 1992)
안위 (이숙자, 장성욱, 1999)		Empowerment (Hawks, 1992)
암환자의 피로 (이은현, 1999)		Spiritual perspective, hope, acceptance (Haase, Britt, Coward, Leidy, & Penn, 1992)
한국노인의 안녕 (이숙자, 장혜경, 1999)		Feminism (Allan, 1993)
간호전문직 자율성 (지성애, 유형숙, 2001)		Friendship (Caroline, 1993)
산후 조리 (박형숙 외, 2001)		Quality of life (Meeberg, 1993)
영성 (오복자, 강경아, 2000)		Dignity (Mairis, 1994)
통증 (최의순, 김상돌, 2001)		Expert (Jasper, 1994)
노인의 삶의 질 (이선혜, 이정섭, 2002)		Trust (Meize-Grochowski, 1994)
당혹감 (정은정, 정복래, 2002)		Collaboration (Henneman, 1995)
피로 (최의순, 송민선, 2003)		Need (Endacott, 1997)
		Normal labour (Gould, 2000)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고, 맥락, 가치 탐구, 및 범주의 현실화 단계를 통해 개념의 의미를 여러 상황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속성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개념분석 과정의 결과를 이론화 하여 검증하는데 용이한 점이 장점이라는 평가가 있다(Cho & Kim, 2000).

혼종 모형(hybrid model)

혼종 모형은 Schwartz-Barcott와 Kim(1986)이 제시하였는데, Wilson의 개념분석 방법과 현장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기존의 개념을 규명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 접근은 특히 임상 실무에서 형성된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호에서 의미 있고 중심이 되는 개념 현상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Walker와 Avant 방법에서 결여된 광범위한 문헌 검토, 실제 간호나 환자 상황으로부터 나온 사례, 질적 분석의 일부 기법 사용, 지적 엄격성과 단계들 사이의 전후 탐구 등의 질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

혼종 모형은 이론 단계, 현장 단계, 그리고 최종 분석단계로 구성된다. 이론 단계는 관심 있는 개념을 선택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정의와 측정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찾아 서로 연관을 지어보고 정의를 내리는 과정으로서 심도 깊은 분

석과 개념의 정련화가 이루어진다. 문헌고찰의 방향은 ‘개념의 핵심이 되는 본질은 무엇인가?’, ‘개념의 본질이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가?’, ‘측정가능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현장단계는 이론적 단계에서 분석된 개념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타당하게 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참여관찰은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두고 연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현장단계에서의 관찰은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현장을 설정하여 교섭한 후 사례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최종 분석단계에서는 이론단계를 수정하거나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재검토하는 단계로서 개념을 명백히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혼종 모형 역시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의 간호 상황 내에서 몇 개의 사례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와 일반성, 그리고 유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 지식의 진보를 위한 사용에는 제한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Morse, Hupcey, & Lenz, 1997).

진화론적 방법(evolutionary method)

<Table 1-continued> Topics of concept analysis by method

Hybrid Method	Evolutionary Method
회상 (전시자, 1992)	Human suffering in nursing care and research (Rodgers & Cowles, 1996)
안위 (장성옥, 이숙자, 1996)	Mentoring in nursing (Stewart & Krueger, 1996)
옹호 (조갑출, 1996)	Parent participation (Coyne, 1996)
고통 (강경아, 1996)	Need (Endacott, 1997)
여성건강 (이경혜, 1997)	Lecturer practitioner (Elcock, 1998)
회복력 (김혜성, 1998)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non-small cell lung cancer (Cooley, 1998)
아동의 고통 경험 (강경아, 1998)	Family-centered care (Hutchfield, 1999)
무기력 (김인자 외, 1999)	Clinical supervision (Lyth, 2000)
희망 (송미순 외 5명, 2000)	Flexibility (August-Brady, 2000)
환자존중 (유명란, 2003)	Risk (Jacobs, 2000)
암환자의 영성 (이미라, 2003)	Expertise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Naumanen-Tuomela, 2001)
건강불감증 (이동숙과 이은옥, 2003)	African-American spirituality (Newlin, knafle & Melkus, 2002)
흡연 유혹 (장성옥, 2004)	Cultural competence (Suh, 2004)
노인의 자아통합감 (장성옥 외, 2004)	Palliative care in the United States (Meghani, 2004)
영성 (오복자와 강경아, 2005)	
Therapeutic alliance (Madden, 1990)	
Chronic sorrow (Phillips, 1991)	
Withdrawal (Verhulst & Schwartz-Barcott, 1993)	
Professional identity of the nurse (Ohlen & Segesten, 1998)	
Energy (Lerdal, 1998)	
Family centered care (Hutchfield, 1999)	
Envy (Maijala, Munnukka, & Nikkonen, 2000)	
Susceptibility (Steele, 2003)	
Nursing informatics (Erdley, 2005)	
Coping (Seemun GA. etc, 2006)	
Dance (Ravelin, Kylma, & Korhonen, 2006)	
	Feminist Approach
	Noncompliance (Wuest, 1993)
	The mother-headed single-parent family:(Gilboe & Campbell, 1996)
	Vulnerability(Glass & Davis, 2004)
	Qualitative Method
모성역할 획득 (이혜경, 1995, 1998)	한국의 사회심리적 간호 (이명선, 1994)
영적 건강 (민소영, 1995)	만성 질환자의 강인성 (고금자, 1999)
Social support (Norbeck, Lindsey, Carrieri, 1983)	Health (Morse, 1987)
Uncertainty (Mishel, 1984)	Hope (Owen, 1989)
Hope (Miller & Powers, 1988)	Touch (Estabrooks,1989; Estabrooks & Morse, 1992)
Learned helplessness (Quinless & Nelson, 1988)	Benevolence (Lutzen & Nordin,1993)
Loneliness (Mahon & Yarcheski, 1988)	Privacy (Applegate & Morse, 1994)
Quality of life (Ferrans & Powers, 1992)	Compathy (Morse, 1995)
Hardiness (Jennings & Staggars, 1994)	Hope (Morse & Doberneck, 1995)
Maternal role competence (Mercer & Ferketich, 1994)	Suffering & enduring (Morse & Carter, 1996)
Belonging (Hagerty & Patusky, 1995)	Enduring, uncertainty, suffering, hope (Morse & Penrod, 1999)
	Triangulation
Critically Appraising the Literature	
Trust (Hupcey, Penrod, Morse, & Mitcham, 2001)	Quality of life (Warner, 1999)
Uncertainty (Penrod, 2001)	Vulnerability (Spiers, 2000)
Creativity (Fasnacht, 2003)	Perceived risk of heart attack (Lefler, 2004)
	Critical Analysis
Method by Chinn & Kramer	
산업체 근무 생산직 근로자의 건강 (조정민과 김분환, 2000)	Arguments (Waterbury, 2001)
Intimacy (Timmerman, 1991)	Compliance (Murphy & canales, 2001)
Social isolation (Warren, 1993)	Surveillance discourses (Wilson, 2001)
Dignity (Haddock, 1996)	Spirituality (Bash, 2004)
	Dispositional shame (Leeming & Boyle, 2004)

Rodgers(1989)는 Walker와 Avant의 선형적 분석방법과는 달리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개념의 본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순환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도 Wilson의 개념분석 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개념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는 달리

개념의 본질을 탐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념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으로써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보여 주고 있다. Rodgers는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념의 속성과 적절한 적용을 위한 상황을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깊이 있는 지식의 발

달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에 고착된 의미에 영향을 주는 의미, 사용 그리고 적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개념분석방법과 달리 경계사례, 반대사례, 창안사례들에 대한 규명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례들은 개념이 엄격한 일련의 정의 또는 시간이나 세계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 특징지어진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엄격한 경계선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개념의 형태와 개념과 세계와의 상호연결성과 변화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외에도 Rodgers의 진화론적 방법은 자료 수집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에 포함하기로 결정된 각 학문분야에서 제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 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자료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Rodgers의 진화론적 방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사용이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 및 관련된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관심 개념과 대리용어를 규명한다. 둘째, 자료에 포함시킬 기간, 학문분야, 그리고 문헌 형태의 영역을 정하고 연구에 포함하기로 한 각 학문 분야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제시된 모든 자료를 확인한다. 셋째, 개념의 속성과 맥락적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맥락적 특성 규명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한다. 그 다음에 각 자료에서 제시한 개념의 속성과 저자의 개념에 대한 가정, 개념의 전후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관련된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요인, 속성, 결과, 관련 개념, 대리용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그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학문분야 사이에서, 그리고 그 학문분야 내에서 어떻게 변이되고 변화되었는지 분석한 후, 발견된 선행요인, 속성, 결과를 표로 작성하고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추출된 선행요인, 속성, 결과 중에서 일반적인 주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각 자료의 분류와 재분류를 반복한다. 주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명명한다. 다섯째로는 개념의 모델 사례를 규명하고, 여섯 번째로는 개념발달을 위해 함의(implication)와 가설을 규명한다.

양적 방법

개념분석에 대한 양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념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비연구가 나온 후에 시도된다. 개념의 내적 특성과 이론적 정의를 명확하게 한 후에, 다음 단계로 실용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양적 접근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정련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Cronbach's alpha, 상관관계(correlation),

회귀분석, LISREL, 판별분석 등이 있다.

개념분석에서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 측정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적 방법은 문헌으로부터 유도된 이론을 기초로 하거나 개념분석을 전제로 한다. 개념을 기초로 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원래의 개념분석을 평가하여 적절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념의 속성, 요소, 차원 등이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되고 기술되어야 하며, 개념이 잘 정리되어야만 한다. 개념의 형성(이론적 정의, 하위 차원, 속성, 영역, 전제조건, 결과를 포함하는)은 측정 방법을 선택하고 설계하는데 대한 청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지도는 종종 모형이나 차원의 세트, 또는 완벽한 하나의 이론에서 산출되는데, 이는 연역적 양적 검증을 받게 된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면 개념의 심리적 속성을 먼저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간호 현상에서 나타난 개념을 더욱 정련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알게 한다. 간호학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심리적 속성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는 Cronbach's alpha로, 내적 일관성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단,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일차원적일 때만 신뢰도(내적 일관성)를 보여줄 수 있으며, 만약 개념화가 다차원이거나 서로 독립적인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부척도 사이의 내적 일관성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요인 분석은 구성타당도, 특히 개념의 차원성이나 의미의 구조를 사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양적인 방법은 개념의 정련화와 재검증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밝혀진 개념의 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방법은 LISREL을 이용한 다중지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multiple-indicator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론적 개념화를 기초로 한 측정모형이 자료와 맞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개념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LISREL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적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적 방법

질적 방법을 이용한 개념분석은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발하는 방법이다. 질적 방법의 일차적 목적은 면담이나 관찰 자료를 범주로 도출하고, 특정한 선행요인과 결과에 의해 특성을 규명하고, 개념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다. 한 범주와 다른 범주의 비교는 각 개념의 포함/제외 기준의 규명을 가능하게 하며, 이 과정은 경계의 확인을 촉진한다. 합성과 추상의 기법은 정확한 분석 용어로 개념을 서술할 수 있게 한다.

합성과 추상은 경험의 단순한 서술 그 이상의 진정한 개념화로 분석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이다(Morse, Hupcey, & Lenz, 1997).

질적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현상학적 방법,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족과학(ethnoscience), 그리고 근거이론 등이 주로 사용된다. 현상학적 방법은 일차적인 개념 규명과 개념분석에 적합하다. 문화기술지 또한 개념분석에 사용되어 왔다. 민족과학의 목적은 정보제공자의 시각으로부터 인지적 범주를 이끌어내고 개념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념 분석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다. 이는 Wilson에서 유도된 방법보다 더 균형 잡힌 방법으로, 인식론적, 논리적, 실용적, 그리고 언어학적 원리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개념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구조적인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확인된 개념들의 특성은 의미론적 기법(문장 완성 같은)을 통해 규명되고, 경계는 Q-sorts나 카드 분류를 통해 규명된다. 근거이론방법은 시간에 따른 과정과 변화를 기록하고, 범주를 연결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특히 범주를 탐구하는데 유용하다(Morse, Hupcey, & Lenz, 1997). 개념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는 선행요인, 결과 및 속성이 쉽게 규명된다. 특히, 근거이론 기법은 탐구되는 개념의 본질을 끌어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부정적 사례의 확인과 서로 다른 맥락이나 인구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개념의 서로 다른 형태를 규명하고, 얻어지는 속성의 완전한 서술이 가능해진다. 질적 자료의 풍부성은 관계를 도식화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적 기법의 결합은 현상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Estabrooks (1989)는 접촉(touch)에 대한 지각을 서술하는 연구에서 문화기술지뿐만 아니라 근거이론을 이용하였다. 문화기술지로는 접촉의 유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근거이론으로는 특성들을 서로 연결하고 선행요인과 결과를 통하여 모형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연적인 세팅에서 개념에 대한 정보를 목적으로 구하다 보면, 귀납적으로 개념이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어가거나 연역적으로 연구하는 탓에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삼각검증법을 이용한 개념분석 방법은 이전의 분석방법과는 달리 단일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둘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여 개념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주로 내부자적 접근과 외부

자적 접근을 통합하여 이용하는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문제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관찰된 현상들에 대하여 연구자의 해석에 근거를 두어 이들의 연관성을 찾아 용어를 개념화하는 새로운 방법이다(Spiers, 2000; Tripp-Reimer, 1984). 이 접근은 특히 문화적 개념을 분석하고(Warner, 1999) 사회문화적 변수를 측정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용된다(Lefler, 2004). 문화적으로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거나(Tripp-Reimer, 1984), 최근에는 성별에 따른 질병의 지각된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Lefler, 2004)를 수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삼각검증법은 주관적 자료와 객관적, 관찰적 또는 숫자상 자료를 통해 범주화하고 얻어진 결과를 통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교하여 개념의 속성과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다(Streubert & Carpenter, 1999). 이 분석 방법은 객관적-주관적 관점, 귀납적-연역적 관점, 전체적-부분적 관점에서 비교되는 상반된 의미가 아니라 자료의 통합으로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 현존의 개념이나 이론을 수정하거나 명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각검증법의 목적은 개념의 완전성이나 확증에 있다(Foss & Ellefsen, 2002; Shih, 1998). Shih(1998)는 이 방법은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간호체계와 질병에 대한 인간 반응의 다면적인 복잡성을 서술하고 개념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은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 중의 첫 번째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자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되고 특정 문화 집단의 참여자의 관점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방법론에서 제한점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주관적,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문화 집단 맥락 내에서 의식의 의미나 관찰된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에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질적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양적 방법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인력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더구나 많은 자료로 인한 잘못된 해석과 자료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비평적 문헌평가(critically appraising the literature)

비평적 문헌평가는 Morse(2000)가 개발한 방법으로서 개념의 속성이 모호하거나 너무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극복하고 개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여 실용적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념에 대한 여러 가

지 정보와 개념이 기존의 모형과 이론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준다. 이 방법은 다른 저자의 생각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과 구별된다. 또한 특별한 분야에 중대한 기여를 한 연구를 요약하는 종설 연구과도 구별되며 논쟁이 되는 연구 질문이나 가설 혹은 논리 단계를 규명하기 위해, 또는 연구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문헌고찰 연구와도 구별된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구할 개념 선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음은 자료문헌의 선택 및 고찰이 진행된다. 그 다음 개념의 성숙 수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석적이고 비평적인 질문을 도출하여 개념을 재분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요소(선행요인, 속성, 경계, 결과와 이론적 정의)를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 개념뿐만 아니라 관련 개념, 유의어, 반대어 등에 대한 단어 목록을 마련하여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문헌검색 작업을 안내할 수 있는 예비 질문을 준비함으로써 탐구할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정한다.

그 다음 개념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문헌 고찰을 통해 개념의 성숙수준을 네 가지 원리, 즉 인식론적 원리, 실용적 원리, 언어학적 원리, 그리고 논리적 원리에 따라 분석한다. 인식론적 원리는 지식의 본질을 다루는 것으로서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다른 개념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실용적 원리는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그 개념의 조작화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언어학적 원리는 개념의 의미나 사용이 다양한 맥락 하에서도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 원리는 이론 안에서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원리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각 학문분야별, 원리별로 분류하여 요약된 자료로 제시한다. 평가 결과 미성숙한 개념은 질적 연구방법이나 적절한 자료문헌을 사용하여 규명·개발·설명·수정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성숙한 개념은 문헌에 있는 개념을 비교하고 수정함으로써 명확하게 만든다(Morse, Hupcey, Mitcham, & Lenz, 2000).

다음으로는 분석적, 비평적 질문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재분석하는 단계로, 도출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들을 학문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요약하여 제시한다. 여기에서 질문을 도출하는 것은 개념의 모든 차원을 각 학문분야 간에 그리고 연구문헌 간에 비교분석하고 심사숙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연구를 발전적으로 안내하고 연구과정을 독특하고 창조적

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Morse와 그의 동료들(2000)은 신뢰에 대한 개념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적, 비평적 질문들을 도출하고 있다: 개인은 신뢰를 즉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발전되는가? 신뢰에는 선행조건이 필요한가? 개인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만 타인과의 신뢰가 형성되는가? 신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신뢰는 선천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경험적으로 학습되는 것인가? 신뢰는 일방적인가, 아니면 상호 호혜적인가? 신뢰 형성과정은 시험 행동을 포함하는가? 신뢰에도 유형이 있는가? 신뢰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신뢰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개념적 요소(선행요인, 속성, 경계, 결과와 이론적 정의)를 도출하고, 다음 단계의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평적 문헌평가의 장점은 개념의 성숙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개념의 정련화 혹은 명료화의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개념 정의와 그것이 조작화되어 온 방법 사이의 일치를 검사하고, 개념의 정의와 임상적 적용 사이의 부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

비판적 개념분석은 비판과학에 입각하여 특정 개념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최근 20년간 간호문헌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비판과학은 이론적 및 철학적 기틀을 위해 다양한 학자의 철학적 입장과 역사적 사고에 근거한 비판적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Fontana, 2004). 이러한 광의의 개념화를 충족시키는 용어로는 해방(emancipatory), 실천(praxis), 행동(action), 참여 행동(participatory action), 페미니스트 연구(feminist research) 등이 있다. 비판과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실과 개인을 이해하는 기회를 전문직에게 제공하며,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간호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판연구의 철학적 토대는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 School)의 비판전통, 하버마스(Habermas)의 비판이론 및 페미니스트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Fontana(2004)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서 유래된 비판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의 공통적인 과정-비평(critique), 맥락(context), 정치(politics), 해방적 목적(emancipatory intent), 민주적 구조(democratic structure), 변증법적 분석(dialectic analysis), 자기성찰성(reflexivity)-이 합성될 때 간호연구를 위한 비판적 방법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7가지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판이론은 사람은 억압적인 현실로부터 자유로워 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비평 및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비판적 연구에서, 비평은 사회구조 내의 권력관계와 불균형을 조사함으로써 불의와 억압의 힘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반대사고, 반영, 분석 및 담화를 포함한다.

두 번째, 비판과학은 맥락은 현상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현상을 유발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역사적 및 구조적 맥락에 현상을 놓는다. 비판과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맥락이 연구의 초점을 둔다. 따라서 비판과학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현상을 지속시키는데 작용하는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힘을 다룸으로써 관심 현상을 맥락화시키게 된다.

세 번째, 비판과학은 지식 생성을 정치활동으로 가정한다. 이데올로기 연구라 불리는 비판과학은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연구과정에 내재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정치 활동을 포함한다. 비판적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억압적 현실을 형성해 온 정치적 힘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도록 돕는 질문을 사용하고, 의료와 간호의 정치적 성격을 인식하며, 참여자들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비판과학은 해방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사회 변화를 통하여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해방은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집합적 힘을 가지게 되는 상태로 정의되며, 이것은 비판과학의 특징인 의식 향상과 실천으로 성취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비판과학은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적, 비계층적 관계가 특징으로서 민주적이며 상호 교육하고 합의하는 상호성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협력자로서의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비판과학은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에 대한 비평의 출발점으로 모순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모순적 요소들의 총체로 사회를 이해하는 변증법적 과정이 비판과학의 중심에서 있다.

일곱 번째 비판과학은 연구자와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의 힘과 역사의 힘을 인식한다. 연구자들은 자료가 어떻게 역사적 요인, 기관의 정책 및 연구자의 가정과 편견에 의해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압력을 노출시키는 자기성찰 방법을 사용한다.

비판적 분석을 이용한 간호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Murphy와 Canales(2001)는 간호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는 이행 (compliance)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간호문헌을 고찰하고 비판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철학은

사회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비평 이론학으로서, 이들은 간호학자들이 이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 용어가 사용된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간호문헌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범주, 즉 평가(evaluative), 합리화(rationalization), 수용(acceptance)을 규명하였다. 그 외에도 Bash(2004)는 개인의 종교적, 영적 및 문화적 요구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환자 현장을 참조해서 영성(spirituality)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임상실무에서의 함의를 탐구하였다. Leeming과 Boyle(2004)은 성향적 수치심(dispositional shame)에 관한 최근의 연구를 검토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많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치심의 개념화를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비판과학은 간호개념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간호 전문직은 비판적 사고가 풍부한 전통을 받아들여 간호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접근(feminist approach)

개념분석에서의 페미니스트 접근은 차이점과 복잡성 그리고 관련성을 강조하고 좀더 맥락적인 분석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시각은 간호이론을 토대로 채택된 개념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Wuest, 1994). 우선 페미니스트 비평은 남성중심적인 과학적 사고와 민족중심적인 편견에 이의를 제기한다(Harding, 1991). 다시 말하면, Harding은 인간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백인 중류층 남성의 경험에 기초하며, 여성은 그들의 삶을 남성 개념의 용어 속에서 생각하도록 강요받아 왔고, 따라서 여성들 자신의 경험이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 개념분석의 전통적인 접근들은 객관적 실체를 중요시하는 환원주의적 관점으로부터 파생되었다(Wuest, 1994). 이러한 전통적 경험과학은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반면 페미니스트 연구는 현실은 주관적이고 다양하며, 맥락적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Harding, 1991). 그리고 주관적 실체는 사회적, 역사적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목표는 주관적 실체를 넘어서서 불공평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숨겨진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즉 페미니스트 이론은 여성의 기회를 제한하는 남성중심적 편견을 밝힘으로써 여성을 해방시키려는데 있다(Yi & Yih, 2004).

페미니스트 연구와 이론의 주요 초점은 여성이지만, 페미니즘은 계층과 민족적 편견에 대한 고려도 포함한다. 페미니스트 연구는 해방이라는 주요 목표를 위하여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으로서, 이미 받아들여진 이론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남성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 혹은 계층적인 편견에 대

하여 주의 깊게 검증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에서는 주관성과 맥락성을 중시함과 동시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분법을 부정한다. 자기성찰성을 중시하고, 특히 여성의 경험을 가치평하기보다는 가치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최근 매우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건의료체계를 지배해 온 남성적인 사고, 즉 개인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사고보다는 차이점과 복잡성 그리고 관련성과 맥락성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Sohier, 1992). 페미니스트 비판을 시도한 논문으로는 한 부모 가족 관련 연구를 들 수 있다. Ford-Gilboe와 Campbell (1996)은 간호문헌에서 한 부모 가족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온 범위를 조사하고, 문헌에 나타난 남성 중심적 편견 및 자기민족 중심적 편견을 탐구하며, 이 비평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이 어떻게 한 부모 가족에 관한 더 균형 잡힌 간호지식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페미니스트 비평의 목적을 여성이 경험하는 중요한 현상에 대한 기존 지식의 편견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의 욕구를 다루는 대안적 시각을 제공한다. 결국 페미니스트 비평은 과학 문헌의 균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Glass와 Davis(2004)는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에 대한 페미니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취약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이론적으로 재조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페미니스트 민족과학 간호연구로부터 도출된 자료들에 대한 이차분석을 실시하여 취약성의 개념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페미니스트 접근은 최근 접근법들의 한계를 보완해 줄 뿐 아니라 간호이론이나 모형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후의 개념 및 이론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특히 개념 분석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을 포함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이면서 계층적인 편견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그동안 간호학계에서는 간호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개념개발을 통해 이론을 향상시키고 간호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개념분석을 통한 이론 개발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개념의 기술, 구조, 측정, 그리고 조작화 등의 과정으로 이론의 축을 만들고 있다(Morse, Hupcey, & Lenz, 1997). 따라서 개념의 분석과 명료화 작업은 이론 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Walker와 Avant의 방법과 혼종 모형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개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10가지 방법, 즉 Walker와 Avant의 방법, Chinn과 Kramer의 방법, 혼종 모형, 진화론적 방법, 양적 방법, 질적 방법, 삼각검증법, 비평적 문헌평가 방법, 비판적 분석, 그리고 페미니스트 접근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개념분석과 명료화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적용한 실제 예를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향후 개념분석 연구에 적절한 접근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References

- Bash, A. (2004). Spirituality: the emperor's new clothes?. *J Clin Nurs*, 13, 11-16.
- Chinn, P. L., & Kramer, M. K. (1995). *Theory and nursing. A systematic approach*(4th ed.). St. Louis: Mosby.
- Cho, C. M., & Kim, B. H. (2000). Concept analysis about workers health, *J Korean Acad Nurs*, 30(2), 272-281.
- Fontana, J. S. (2004). A methodology for critical science in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7(2), 93-101
- Ford-Gilboe, M., & Campbell, J. (1996). The mother-headed single-parent family: A feminist critique of the nursing literature. *Nurs Outlook*, 44, 173-83.
- Foss, C., & Ellefsen, B. (2002). The value of comb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n nursing research by means of method triangulation. *J Adv Nur*, 40(2), 242-248.
- Glass N., & Davis K. (2004). Reconceptualizing vulnerability;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s a postmodern feminist analytical research metho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7(2), 82-92.
- Harding, S. (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Lee, S. W., Kim, J. H., Lee, B. S., Lee, E. H., & Jung, M. S. (1997). *Understanding of the nursing theory*. Seoul: SooMoon Publishing.
- Leeming, D., & Boyle, M. (2004). Shame as a social phenomenon: A crit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dispositional sham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7, 375-396.
- Lefler, L. L. (2004). Perceived risk of heart attack: A function of gender?. *Nursing Forum*, 39(2), 18-26.
- Meleis, A. I. (1985). *Theoretical nursing: Development and progress* (2nd Ed.). California : J. B. Lippincott.
- Morse, J. M. (2000) Exploring pragmatic utility: concept analysis by critically appraising the literature. In B. L. Rodgers & K. A. Knafel (2nd Ed),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p. 333-352).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 Morse, J. M., Mitcham, C., Hupcey, J. E., & Tason, M. C.

- (1996b). Criteria for concept evaluation. *J Adv Nurs*, 24, 385-390.
- Morse, J. M., Hupcey, J. E., Mitcham, C., & Lenz, E. (1996). Concep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A critical appraisal.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0, 257-281.
- Morse, J. M., Hupcey, J. E., & Lenz, E. R. (1997). Choosing a strategy for concep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Moving beyond Wilson. In Gift, A. G. (1997). *Clarifying concepts in nursing research* (pp. 73-96).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urphy, N., & Canales, M. (2001). A critical analysis of compliance. *Nursing Inquiry*, 8(3), 173-181.
- Rodgers, B. L. (1989). Concepts,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nursing knowledge: The evolutionary cycle. *J Adv Nurs*, 14, 330-335.
- Rodgers, B. L., & Knafl, K. A. (2000). Philosophical foundation of concept development. In B. L. Rodgers & K. A. Knafl (2nd Ed),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p. 7-37). Philadelphia: W. B. Saunders Company.
- Schwartz-Barcott, D., & Kim, H. S. (1986). Hybrid model for concept development. In P. L. Chinn (Ed.),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implementations*. Rockville, MD: Aspen.
- Shih, F. J. (1998). Triangulation in nursing research: Issues of conceptual clarity and purpose. *J Adv Nurs*, 28(3), 631-641.
- Spiers, J. (2000). New perspectives on vulnerability using emic and etic approaches. *J Adv Nurs*, 31(3), 715-721.
- Streubert, H. J., & Carpenter, D. R. (1999).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dvancing the humanistic imperative* (2nd Ed.). Philadelphia: Lippincott.
- Tripp-Reimer, T. (1984). Reconceptualizing the construct of health: Integrating emic and etic perspectives. *Res Nurs Health*, 7, 101-109.
- Walker, L. O., & Avant, K. C. (199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3rd Ed.). Norwalk, CT: Appleton & Lange.
- Warner, R. (1999). The emic and etics of quality of life assessment.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34(3), 117-121.
- Wuest, J. (1994). A feminist approach to concept analysis. *West J Nurs Res*, 16(5), 577-586.
- Yi, M., & Yih, B. S. (2004). Feminism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J Korean Acad Nurs*, 34(3), 565-575.

A Review Study on the Strategies for Concept Analysis

Yi, Myungsun¹⁾ · Lee, So Woo¹⁾ · Kim, Kum-ja²⁾ · Kim, Myo-gyeong²⁾ · Kim, Ji-hyun²⁾
 Lee, Kyung-hee²⁾ · Lee, Inok²⁾ · Lee, Jung-sook²⁾ · Hong, Jeong-hee²⁾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Concept analysis is an essential part of theory development in nursing. Thus, many strategies or methods of concept analysis have been suggested in nursing literature. However, in Korea, only limited strategies were utilized, without much consideration on a wide range of strategies in choosing a method that coincid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cept to analyz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pose various strategies for concept analysis. **Method:** A literature review method was used. **Result:** Ten methods of concept analysis were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they were evaluated for advantage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to the method by Walker and Avant and a hybrid model, more advanced strategies, such as triangulation method, critical analysis and the feminist approach were introduced and described in detail. The examples used in each concept analysis method were presented in table to provide the extent of utilization of each method. **Conclusion:** This article provides a wide range of strategies in identifying, clarifying, or elaborating a concept. It might help in choosing a method that best fits the concept to analyze, thus enhancing quality of concept analysis research.

Key words : Concept formation, Review literatur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i, Myungsu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gon-Dong Ch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29 Fax: 82-2-765-4103 E-mail: donam@snu.ac.kr